

조직국 총노선

(7) 전여대협 평가, 조직국 평가를 꼭!! 대중조직의 총노선에 맞게... 어떻게 잘 서술할 것인가?)

현황:

현재 00개 대학중에 총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은 00개, 그 중에 자주적 총여학생회인 대학은 00개, 총여학생회는 없지만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곳은 00개, 그중에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곳은 0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몇 년째 고질적인 현상으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일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 외 간부 1~2인 정도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경험이 짧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사업의 정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업작품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사상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변혁 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규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보니 조직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체 인식과 투쟁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기층이 매우 취약합니다. 총여학생회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대학에 극소수의 단대여학생회(부), 과여학생회(부)가 존재하고 내용성 있는 단위 고유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상적 과제

전문성, 사상성 강화로 자여론을 보강 정립하고

자주적 여성, 주체형 인간으로 거듭나자.

1. 전문성을 강화하자

1) 여성정세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성민중들의 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얹혀서 여성의 역할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투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가들은 이러한 여성정세를 빠르고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제때에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여성민중이라는 자각을 높여 여성민중의 삶을 가슴깊이 느끼고 전개되는 여성정세를 민첩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① 여성에 관련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

- 매일 종례시 통신총화를 합시다.

② 정기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 일주일에 한번은 기본입니다.

③ 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자

2)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성폭력, 성매매, 기지촌, 위안부, 호주제에서 여성과 노동·정치·가족·문화분야까지 다양한 학습과 연구를 합시다.

3) 체계적인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자.

기초부터 튼튼하게 짐을 지어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성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게 얹여있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바른 관점과 원칙으로 연결고리와 중심고리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닥치는 대로 하면 안된다. 짐을 지을 때도...

1년의 수준별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주체가 확실해야...

4) 방도: 주체가 확실해야.

학습계획을 수준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짜자.

토론의 활성화, 정형 창출

2. 사상생활 강화

여성문제는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의 특성에 맞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미국의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적 모순을 똑바로 알아야 편향에 빠지지 않고 여학생운동도 잘 해 나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상학습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새내기

핵심일꾼: 사상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진행

준핵심: 사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3. 자여론을 보강 정립하자.

기본적으로 이남사회의 성격과 이남의 여성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성해방의 경로를 밝혀내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간고한 여성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풍부화 해야 할 요구가 나서고 있다.

(평가) 지난해에도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전일적인 토론을 일구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작년의 자주적 여학생운동 토론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는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 전문성 강화하고 사상성을 강화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성 강화와 사상성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2) 지난해에 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토론 내용을 공유합시다.

3) 4월과 6월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토론을 진행합시다.

4) 여름 방학 수련회 때 마무리 토론으로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완료 합시다.

4.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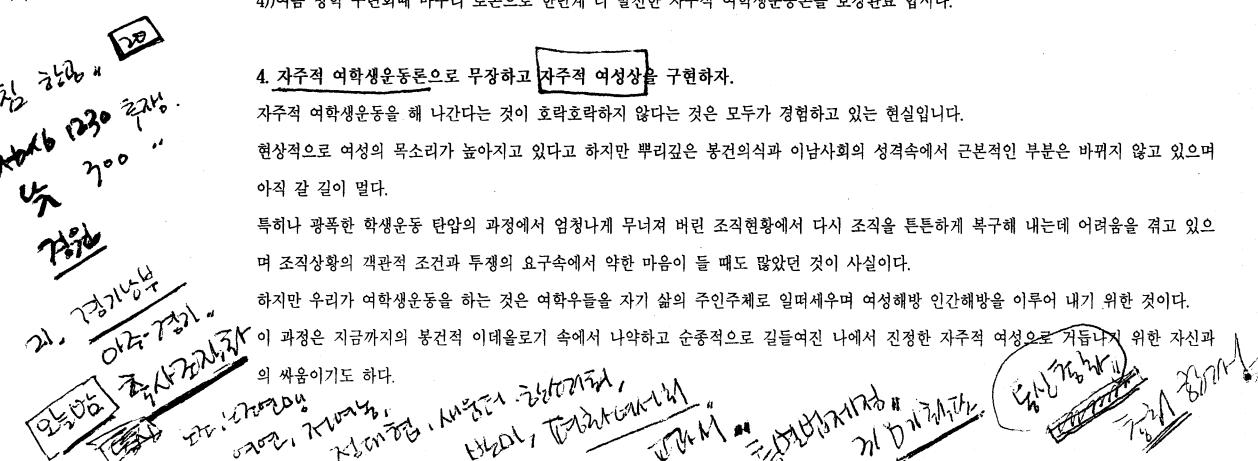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해 나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뿐리깊은 봉건의식과 이남사회의 성격속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광폭한 학생운동 탄압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너져 버린 조직현황에서 다시 조직을 튼튼하게 복구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직상황의 객관적 조건과 투쟁의 요구속에서 약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학생운동을 하는 것은 여학우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며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의 봉건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약하고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나에서 진정한 자주적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의 낡은 의식과 나약함을 버리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여성민중의 해방을 생취하기 위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생활속에서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자.

말보다는 생활의 태도와 작은 실천 속에서 대중을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고 신뢰가 가는 일꾼이 되자.

5. 새내기들의 사상의식 수준을 “더 빨리 더 높이”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교활해지는 제국주의 침탈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지고 개인주의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낮아지고 있고,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내기때부터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야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꾼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는 새내기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은

1)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깨워주자.

여성문제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및 구조적 모순이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 만큼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토론할 때 일상적으로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선배가 쏟아놓기 보다는 낮은 수위부터 조금씩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내기 스스로가 여성문제와 한국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연결지을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매월 역사적인 날(4.19/ 5.18...)에 대한 교양토론 빠뜨리지 말자.

4)2학년이 되기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참고)학습 계획

1)새내기

기본 소모임 활동 속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여성학 학습	사상학습
1학기	2월	기본 의식화 선전과 새터 사업을 통한 의식화	
	3월	대학출범식 자라오는 과정속에서의 성역할 고정화에 대해, 여학생회관 ()	학생회관
	4월	현충련출범식 성 상품화, 성폭력 ()	4.19, 한총련이란
	5월	대동체, 전여대협출범식, 봄농활 성폭력 전여대협이란 여성농민의 삶 ()	5.18, 반미자주에 대해
	6월	기발고사 호주제 ()	6.15
	7월	여름농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통일
여름방학	8월	통일 대축전 기지촌 여성 여성과 통일 ()	8.15
	9월	여성문화제 여성 여성운동사 ()	한국근현대사
	10월	여성운동사()	한국근현대사
	11월	선거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	자주적 학생회관
	12월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	한국사회의 성격
겨울방학	1월	" ()	철학
	2월	" ()	철학

2)새내기 이상의 여학생운동 일꾼

새내기들보다는 학습틀에 있어 시기별로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도 되며 정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여성문제들을 다루면서 깊이있고 풍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면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중간학년의 여학일꾼	핵심일꾼
사상학습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깊이있게 진행하자
여성학습	여성정책, 노동, 가족, 성, 문화 여성운동사, 여성학 이론 여성과 통일(중간 수위)	다양한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운동사 가부장제 이론 여러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과 통일(높은 수위) 민족주의와 여성, 여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의 관계, 여성운동과 혁명운동의 관계

조직적 과제

조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 조직화와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 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계획성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 조직화 사업은 일꾼 재생산 구도를 잘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소모임 사업과 기층 건설을 통해 대중속에서 핵심을 발굴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 조직화은 일상사업과 대중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이또한 핵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선다. (기층조직의 핵심을 통해서)

현재 전여대협의 조직 현황 상 전일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여학생운동 대중화가 절실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만 해결 될 문제도 아니다.

장기적 구도(목표)속에서 구체적 계획을 내어 오고 상시적인 총화점검과 내실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사관철 해 나갈 때만이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부분은 장기적 전망과 계획속에서 올해의 과제와 목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1. 전여대협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을 수립하자

1)대학여학생운동 강화

전여대협은 그대로 전국의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이 조직의 위상에 맞게, 여대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생취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여학생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대학여학생운동은 과여 학생회부터 총여 학생회까지의 전일적인 체계가 튼튼하게 구축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부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소모임까지 건설해야 한다.

2)지역여학생운동 강화

3) ~~여성~~ 단위와의 연대체(또는 공동투쟁) 마련 - 서울지역과 지방의 소수 대학

~~여성~~ 단위와의 연대체(또는 공동투쟁) 마련 - 서울지역과 지방의 소수 대학

2. 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을 수립하자.

대학 여학생운동의 주체역량 강화를 통한 운동 대중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올해의 목표와 핵심과제를 고민해보자.

3년후 (2004년) 목표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 체계 구축

※ 장기적인 목표속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고려해야 할 지점

: 지금까지 기충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단위에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대 또는 과에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 주체가 핵심일꾼으로 커가지 못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면 단위에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도로 동반하게 되었다.

원인이 무엇일까? 실제 총여학생회 역량이 부족하여 주체를 내실있게 꾸준히 지도해내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주체의 준비정도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한계도 매우 컸다. 학번도 어린데다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감을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느라 1년 뒤 대중사업과 사람사업에서 성과가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성과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충을 세울 때, 특히 단대 여학생회(부)장을 세울 때에는 기충에서 경험을 쌓은 주체를 중심으로 기충의 힘으로 세우고 자생적으로 재생산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충건설을 위한 역량배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현재 조건에서는 단대여학생부를 건설하기보다는 과여 학생부를 건설하는데 먼저 힘을 집중하고 과여발특위를 통해 과여회(부)장을 내실있게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 일꾼 재생산 구도의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로써 새내기들을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야 할 요구성이 높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고 잘 꾸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과여회(부)장도 경험많고 고민이 깊은 주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과여발특위와 동시에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여 전단대에서 꼼고루 새내기를 모집하고 새내기때부터 풍부한 교양과 활동을 마련하여 핵심으로 키운다.

1단계 (2002년) - 총여학생회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이 핵심!!

1)총여학생회 소모임 건설

①전단대에서 꼼고루 새내기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학습속에서 빠르게 핵심으로 길러낸다.

②연말의 선거 이후에 다음해의 소모임 주체를 맡을 최소인원을 남기고 각 과여회(부)장으로 배치한다.

(비로소 과여부(회)가 없던 과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과여부(회)건설과 과여발특위 건설

①간담회를 통해 과여부(회)를 세우고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여 소조학습등으로 집중지도, 핵심으로 키운다.

②연말의 선거시기 과여부(회)장들 중심으로 단대 여부(회)를 세워낸다.

(비로소 단대 여학생부(회)가 없던 단대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단계 (2003년) - 과여부(회), 과소모임 사업과 단대 여학생부(회) 강화가 핵심!!

1)과여부(회), 과소모임사업 활성화

전년도 총여학생회 소모임이었던 일꾼들이 과여회(부)장이 되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과소모임을 건설, 초기 충인 과에서부터 여학생운동 흐름을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

과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낸다.

2)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경험이 있는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단대에서 여학생운동 흐름을 만들어 낸다.

과여부(회)와 함께 단대 고유의 사업의 만들어 간다.

3단계(2004년)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구축, 대의체계 강화!!

흐름이 만들어진 과단위와 단대 여학생회를 내실있게 지도하여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자.

☞ 지금까지 가상으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각 대학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장기적 목표과 계획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핵심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2. 일꾼 혁신운동을 전개하자.

“핵심은 핵심답게, 실력가가 되자”

핵심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할 때이다. 운동대중화의 승리는 핵심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이 특별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삶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꾼들이 핵심으로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많다.

기본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은 예외없이 “내가 바로 핵심이다”라는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

1)학습의 혁신

매일 학습을 결사관철하자

‘하루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학습을 진행하자

중요한 것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매일 매일 진행하는 것이다.

2)투쟁의 혁신

-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

-전략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가장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맞게 대중을 만나하자.

3)자주적 여성상 구현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향기가 나는 꽃에는 자연스럽게 벌,나비가 모이게 된다.

학우대중에게 신뢰와 애정을 받는 일꾼이 되자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4)생활의 혁신

-생활력을 드높이자. 가장 먼저 등교해서 청소도 하고

-전투적인 조직생활

-결사관철, 자력갱생, 낙천적 생활 기풍

②활동의 혁신

과제: 일상적으로 대중을 만나자.

방도: -하루 3인이상: 학습내용 의식화, 자기 것으로

전체운동대오, 여학일꾼, 무작위 대중, 친분이 있는 동기, 선배, 후배)

수첩운동을 전개하자

3. 새내기 사업에 목숨을 걸자

4. 피라미드 사람사업(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핵심, 준핵심, 새내기 까지도 자기 대중을 갖자.

자기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대중들이 다른 대중에게 다시 의식화 하도록 하는 것

5.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①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투표로 건설된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자기조직으로 느끼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전체에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학생회 중운위, 단대 운위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사업 해결과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전체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대학내 정치학교동에서 여학생 운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풀어내자.

②

대학 정치학교

여학생운동 토론회